

動物園從橫談(Ⅱ)

—動物園의 겨울—

吳昌泳

1. 自然動物界의 겨울

겨울이 닥아오면 世上의 온갖것들은 저마다 形形色色의 겨우사리 마련을 서두르게 된다.

그 中에도 動物의 世界에서는 더욱 復雜한 겨우사리의 樣相을 볼수있는 것이니 말하자면 昆蟲類에서 보다시피 自身の 形態를 알아나 번페기로 쏠려 바꾸어 한겨울을 나고저 하는것이 있는가 하면 爬蟲類나 몇몇 哺乳類들은 그 原理는 조금씩 다르지만 生活方式를 바꾸어 기나긴 겨울을 活動도, 먹지도 않고 冬眠을 繼續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山이나 들에서 흔히 볼수있는 大部分의 哺乳類들은 大概 빠른 것은 늦여름부터 늦어도 한가울 까지는 털바꿈을 하여 體溫의 保畧을 꾀하며 철새와 같이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머나먼 길을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南쪽으로 移動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自然狀態에 있어서의 겨우사리의 모습으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니만치 이만 멈추고 簡單하나마 動物園에서 사람의 손으로 살아가는 動物들의 겨우사리에 대하여 생각나는 데로 늘어 놓기로 한다.

2. 動物園의 겨울

아다시피 動物園은 이 地球上에 살고있는 各動物들을 여러곳에서 모아다 한군데에서 集約的 飼育을 하고있다.

昌慶苑만하더라도 現在 그 種類와 마릿수만 따져서 哺乳類가 48種에 130頭 鳥類가 70種에 508首 爬蟲類는 2種 2尾로서 都合 120種에 640首가 各各 氣候와 風土가 다른 곳에서 살고있다.

勿論 이들 가운데는 이와같이 不自然한 環境과 活動이 制限된 낯선 이 고장이나마 그리 性味에 거슬림이 없어 잘 견디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大概는 아무리해도 제고장만은 못한것은 변

한 노릇이다.

더욱이 여름과 겨울의 氣候差異가 甚한 이곳이고 보면 三伏더위에 冷房施設하나 없는 우리 안에서 겨우 慰安이나 될가하여 넣어준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도 채 숨을 못가누며 여름한철을 지내야하는 흰곰의 苦生스러움도 그러려니와 常綠의 熱帶에서 生來로 추위를 모르던 사자나 코끼리등이 입김서리는 이곳의 동지 설달인들 어찌 想像이나 할번한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一生을 사람에게 맡긴 바에야 일찍이 이런점에 대하여 지나친 念慮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쯤 잘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自身の 힘으로서 할 수 있는 限 여름에 입어 털은 粗雜한 털을 벗어 버리고 새로이 포근한 솜털옷으로 단장한다든가 몸안에 미리 充分한 榮養分을 貯蓄하여 體溫을 調節할 “에너지”의 根源으로 삼는 程度의 겨우사리 準備는 한다지만 그것은 元來 추운곳에서 사는 動物들에 있어서 말이지 아무래도 熱帶動物들은 사람의 特別한 保護를 바랄수 밖에 없다.

3. 溫寒帶動物의 겨우사리

溫寒帶地方의 動物들은 大體로 겨울이라 할지라도 平素와 다름없이 自然의 狀態로 놓아두게 된다.

現在 昌慶苑에 있는 溫寒帶動物은 大概 哺乳類와 鳥類이며 이들은 人工飼育時에도 自然狀態와 마찬가지로 우선 털바꿈을 마치고 겨우 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勿論 種類에 따라 個體에 따라 그 빛깔과 外觀上의 形態가 多少 差異는 있을지언정 여름과 겨울사이에는 뚜렷한 變化를 이르게 된다.

例컨대 사슴의 여름에 있던 흰무늬 아롱진 식듯한 털은 가을로 접어들매 점점 變하여 오히려 좀 보기에 추한 빛깔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것들 눈위에서도 능히 배겨날수 있는 겨울옷으로 가

라입은 것이며 여름에 짙은 빛깔을 갖었던 들평은 겨울에 그것이 完全히 빠지고 새하얀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들과는 좀 달리 北海道에서 온 볼곰은 自然狀態에서는 겨울이 오기前에 털바꿈을 하는 것은 다른 動物과 같지만 그와 同時에 될 수 있는 限 많은 먹이를 먹고 體內에 脂肪分을 貯蓄하여 가지고 荒涼한 山野에 白雪이 뒤덮여 먹이를 求할 수 없게될 무렵 洞窟에 들어가 겨우내 아무것도 먹지않고 되도록 活動을 덜하여 “에너지” 消耗을 最少限으로 抑制하며 冬眠을 持續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운 겨울동안 體溫을 保全하고 “에너지”를 僅만 充分한 먹이를 求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자면 爬虫類의 冬眠처럼 體溫이 낮아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함으로 먹을 래야 먹을수 없어 冬眠을 하는 것과는 달리 볼곰은 먹고 싶어도 먹을것이 없어 할 수 없이 冬眠을 하게되는 것으로 다만 一定한 먹이가 恒常 주어지고 언제나 떠들석한 動物園에서는 구태여 冬眠까지 하면서 궁색을 떨지 않아도 좋도록 되어있다.

이와는 反對로 얼음이 케로 얼고 눈위에 눈이 쌓이는 孟冬에 눈구름을 뚫으며 疾走하는 벃돼지나 熾烈한 角逐戰끝에 뭇 숫놈들을 물리치고 있는 대로의 압것들을 거느리며 늑늑히 橫行하는 것을 볼때 人間에게는 얼른 느끼기 어려운 所謂新春이지만 오직 이놈들만은 봄을 맞았음에 그지 없다고 하겠다.

새들 가운데에도 특히 白鳥 기러기 오리의 무리 또는 두루미 따위는 먹이만 있으면 곳잘 氷雪위에서 춤도추고 잠도 잘수있을 程度로 그들의 耐寒性이란 참으로 놀라운 바가 있다.

또한 먼저도 말하였지만 더위에 지쳤던 흰곰에게도 겨울은 그들에게 다시 없는 季節로서 얼음을 깨 헤치고 俗糟에 들어가 마냥 冷水浴의 맛을 되집곤 하는 품은 果然 北極의 玉箸다운 모습이라 하겠다.

4. 熱帶動物의 겨우사리

昌慶苑의 熱帶動物들은 大體로 “아프리카” 인 도 “오스트렐리아” 및 東南아시아 等地에서 들

여온 것이며 우리나라에선 여름에만 볼수 있는 白鷺 왜가리 피꼬리 밀화부리 및 호반새等 철새들이 있고 爬虫類로서는 악어 비단구렁이(錦蛇)가 各各 한마리씩이 있다.

이와같이 당지에서 겨울철에 特別 管理를 받아야 할 動物들을 대충 數字로 나타내보면 哺乳類가 14種 41頭 鳥類가 29種 186首 爬虫類가 2種 2尾 總 45種 229首로서 全體 飼育數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溫水보일러”로서 煖房이 完備된 動物溫室 또는 페-치카” 난로等 施設이 마련된 우리에서 겨울을 나게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되는 일은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風土가 자기 다른 世界各處에서 모아온 이 動物들을 單一 環境속에서 飼育함에서 있어서는 그 技術과 知識도 重要한 일이지만 그 施設 또한 못지않게 問題거리가 되는 것으로 動物園이란 단지 動物을 잡아다 우리에게 가두고 求景만 시킴으로서 그 使命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더까지나 우선 動物自身은 勿論 보고 研究하는 사람 들에게도 어색하지 않게 合理的으로 우리나라 其他 이에 따르는 施設을 마련하여 될수 있는때까지 그 生活狀態를 效果的으로 展示할 수 있어야 함에도 昌慶苑은 아직 이러한 마련이 거의 되어있지 않아 特히 이들 熱帶動物들의 겨울 管理에 애로가 많을 뿐더러 各己 生態와 習性을 달리하는 이 여러種類의 動物들을 無理한 줄 알면서도 한타령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온 개코원숭이 (狒狒)나 台灣의 물소, 印度의 코끼리를 한 溫室에 칸막이만 하여 같은 溫濕度 및 其他 條件에 겨울을 나게하는데 이는 바로 이들의 原產地의 環境을 無視한 不合理的 管理法인 것이다.

熱帶動物中에서 가장 추위에 弱한 것은 첫째로 코끼리를 들수 있다.

1955년 이들이 겨우 두서너살때 처음으로 昌慶苑에 오던해는 15°C의 室內에서 어찌나 떨던지 오히려 편다기 보다 몸을 마구 흔들며 땀으로 荒急히 毛布로 “오바-코트”를 만들어 입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듬해 겨울에도 이 “오바-는 다시 쓰기

는 했지만 그때는 벌써 一年동안에 相當히 자라
“오바—”는 이미 맞지 않는 것을 잔등만 겨우 덮
어가지고 떨어대든 만화와 같은 꼴이 지금 생각
해도 혼자서 서갈픈 웃음을 터트릴 때가 있다.

그러나 近年에는 제법 成長도 했을뿐만 아니
라 이고장 氣候에도 많이 鍛鍊이 되었음인지
12°C에서는 平常과 다름없이 自然스러운 活動을
하게 되었으며 겨울이라도 날씨만 淸明하면 露
下の 屋外서 2~3時間의 運動을 즐길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사자 東南亞의 호랑이 및 표범
等 猛獸類들은 各各 저마다의 우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끼리와 같이 鍛鍊은 시킬 目的으로 될
수 있는 限 動物의 動態를 살펴가며 큰 影響이 없
을 程度의 낮은 溫度로 室溫을 調節하는데 이는
해마다 점점 低溫度抵抗이 되어가는 것 같다.

호랑이가 自然스럽게 푹 쉴수 있는 溫度는 7
~10°C이며 6°C 以下면 몸은 多少 움크리고 자
게된다.

인도孔雀은 元來 高溫은 좋아 하나 웬만치 추
운 겨울 날이라도 屋外에서의 採餌 및 步行活動
은 比較的 自由롭게 보이나 아무래도 그들의 특
색인 꼬리깃털(上尾筒)을 활자 퍼게 할려면
10°C 内外의 溫室이 要求된다.

이와같이 하여 調節하는 溫度는 動物에 따라다
르며 그 主要한 몇가지를 들면 大概 다음과 같다.

원숭이 類—15°C~18°C

小 鳥 類—13°C—15°C

물 소—15°C—18°C

但 물소는 이 程度의 室溫에서 冬節에 皮膚衛
生에 留意만 한다면 물에 들어갈 必要는 없다.

白鷺類—8°C—10°C

사 자—8°C—10°C

타 조—7°C— 9°C

줄 말—12°C—15°C

이 外에 河馬와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특
히 水溫을 22°C 内外로 維持하며 악어는 아무래
도 28°C 前後의 水溫이 適合하고 비단구렁이는
室溫 30°C~32°C 水溫 28°C라야만 活動에 不
自然을 느끼지 않는것 같다.

타조는 元來 “아프리카”의 熱帶에 사는 것으
로 보다시피 四절을 通하여 듬성듬성한 것이
영성 할뿐 솜터럭(綿羽)이라고는 거의 볼 수 없
는데다가 火腿部나 긴목은 그대로 벌거숭이 인
데도 몹시 찬 날씨에도 곧잘 우리 外에서 運動
을 함은 勿論 雪上에 한참을 앉어 견디어 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壯한 元氣를 의심하지 않
을수 없다.

※ 끝 말

以上 매우 贅세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하여 한겨울 나자면 自然햇빛과 運動
에 굶주리게 되며 濁한 空氣에 무척 衰弱해지는
놈이 생기는가 하면 꼬리가 긴 動物들 가운데는
間或 그 끝이 凍傷을 입어 斷尾手術을 當하고 오
는 봄의 손님맞이 에는 할 수 없이 머운 꼴로나
마 재물을 떨지 않으면 안되는 놈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各 種
族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되도록 이 고장에
適應함으로써 自身을 適者로서 한 세상을 아니
累世代를 生存케 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筆者=昌慶苑動物園長·獸醫師>

發 祝 展

韓國 最初의 完備된 施設

東 都 家 畜 病 院

(舊城北家畜病院)

院 長 宋 永 吉

서울 特別市城北區 敦岩洞 4 2 4

(東都극장건너편) 電話(92) 2954